

〈일반논문〉

百濟 大姓八族과 東아시아 8姓*

오택현**

〈목차〉

- I. 머리말
- II. 百濟 大姓八族 기록 검토
- III. 百濟 大姓八族 완성과 公告
- IV. 百濟 大姓八族과 東아시아 8姓의 의미
- V. 맺음말

[국문초록]

백제에 존재한 대성팔족은 『수서』에 처음 기록된 것으로 보아 위덕왕~무왕 시기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위덕왕, 법왕, 혜왕 시기, 왕실에 남겨진 과제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왕실에서는 왕권 강화를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고, 그 과정 속에서 무왕 시기에 대성팔족이 완성되었다. 이러한 백제의 변화 양상(대성팔족의 완성)은 사신들에 의해 중국에 전해져 알려졌다.

그렇다면 왜 대성팔족이 형성되었을까. 백제의 사비 시기(6~7세기)에는 다양한 성씨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다. 백제 왕실은 최고 8성을 제정함으로써 다양한

* 이 논문은 오택현, 『百濟 姓氏의 歷史的 展開과 大姓八族』,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0a의 3장 1절 「대성팔족의 존재양태와 성립시기」를 수정·보완한 글임, 또 이 논문은 2021년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기금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국사학과 강사

성씨 집단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백제 왕실은 성씨 집단을 통해 귀족을 통제할 북위의 8성 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북위에서는 호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효문제 시기 8성을 제정하여 귀족을 통제하였다. 백제는 북위의 8성 제정을 모델로 삼고 백제의 상황에 맞춰 대성팔족을 성립한 것이다.

대성팔족의 제정은 다양한 성씨 집단 속에서 8개의 성씨를 대성으로 인정해줌으로써 귀족들의 지위를 인정해주었다. 대성팔족으로 인정받은 대성은 자연스럽게 백제 왕실과 결탁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를 통해 무왕은 자신의 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다. 위덕왕 말에서 무왕 시기에 완성된 대성팔족은 왕실과 대성으로 지정된 8개의 성씨 집단 각각에게 이익이었던 정책이었던 것이다.

□ 주제어

大姓八族, 威德王, 武王, 北魏 8姓, 日本 八色姓

I. 머리말

백제에는 고구려, 신라와 다른 姓氏 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구려와 신라는 王姓(高·金씨)이 최고 귀족층을 차지하고 있지만, 백제의 경우 왕성뿐만 아니라 大姓八族이라는 성씨 집단이 최고 귀족층을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대성팔족은 백제의 귀족층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다.

백제의 대성팔족과 複姓에 대해서 전통시대 史家들도 주목했다. 하지만 가장 오래된 사서로 취급되는 『三國史記』에는 백제의 대성팔족 관련 기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오는 대다수의

성씨를 가진 인물을 정리해보면 대부분이 왕성인 扶餘씨 혹은 대성팔족을 가진 인물이다. 이는 『삼국사기』 찬자들이 대성팔족에 대해 직접 기록을 남기지 않았지만, 대성팔족이라는 백제의 특이한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은 엿볼 수 있다. 또 조선 후기 실학자들 역시 백제의 대성팔족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조선 후기 실학자인 한치윤, 이덕무, 이규경이 있다. 이들은 각각 자신의 저서를 통해 대성팔족에 대해 논하였다.¹⁾ 이들은 대성팔족이 기록된 중국 기록을 소개하며 대성팔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付記하였다. 하지만 그 실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실학자들 이후 대성팔족 관련 연구로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인 이마니시류(今西龍)의 연구가 주목된다. 그는 「百濟五方五部考」에서 『通典』에 기초하여 백제의 대성팔족을 설명하였다.²⁾ 아울러 『삼국사기』 및 『日本書紀』에 기록된 백제의 성씨도 함께 정리했다.³⁾ 그러나 백제 부명(部名)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성씨를 일부 언급했기 때문에 대성팔족의 실체와 백제 성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 7세기 작성된 자료(『隋書』, 『北史』, 『翰苑』)를 인용하지 않고, 8세기 자료인 『통전』에

1) 한치윤(韓致淵)은 『해동역사(海東譯史)』에, 이덕무는 그의 아들 이광규(李光葵)가 아버지인 이덕무의 저술을 모두 모아 편집하고 이완수(李琬秀)가 교열한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 이덕무의 손자인 이규경(李圭景)은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백제 대성팔족에 대해 서술했다.

2) 今西龍, 「百濟五方五部考」, 『百濟史研究』, 近澤書店, 1934, 294~300쪽.

3) 今西龍의 위의 저서에 의하면 백제는 大姓八族 이외의 성씨로 『三國史記』에는 ‘木荔’, ‘祖彌’, ‘再曾’, ‘沙吒’, ‘黑齒’, ‘贊’ 등이 있다고 하고, 중국에서 들어온 성씨로는 ‘張’, ‘王’, ‘馬’, ‘丁’, ‘高’가 있다고 한다. 『日本書紀』에서는 ‘木’, ‘適’, ‘古爾’, ‘姐彌’, ‘木荔’, ‘嫡’, ‘鼻利’, ‘國’, ‘燕’, ‘科野’, ‘阿屯’, ‘棕’, ‘姬’, ‘白’, ‘鬼室’, ‘木素’, ‘谷那’, ‘四比’, ‘答怱’, ‘金’, ‘沙宅’ 등을 백제 성씨라고 기록했다. 하지만 『日本書紀』에 기록된 성씨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백제 성씨 수용 과정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근거해 대성팔족을 설명한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해방 이후에는 이흥직에 의해 대성팔족 연구가 이루어졌다.⁴⁾ 이흥직은 이마니시류와 마찬가지로 『통전』에 기초하여 백제 대성팔족을 실증하였다.⁵⁾ 더불어 그는 문헌과 금석문 자료를 망라하여 최초로 백제 대성팔족을 범주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沙宅, 沙吒 등을 사씨의 범주로 묶었으며, 이마니시류와 마찬가지로 木씨와 荔씨를 하나의 성씨로 파악하였다. 일본 학자인 무라야마 마사오(村山正雄)도 비슷한 시각에서 대성팔족을 이해하였다.⁶⁾

백제 대성팔족에 대한 기록이 중국 문헌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만큼 그 의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인지 대성팔족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대성팔족 각각의 성씨 집단이 어느 지역을 기반으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지역적 기반을 토대로 특정 지역과 연결하여 각 성씨의 기반을 찾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⁷⁾

이처럼 대성팔족은 백제 지배층을 이해하는 자료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대성팔족은 백제사 이해를 위한 중요 키워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서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언제 그것이 백제 사회에서 성립

4) 李弘植, 「百濟人名考」, 『(서울대학교)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1輯, 1954.

5) 大姓八族은 중국 『隋書』를 시작으로 『北史』, 『括地志』, 『新唐書』, 『通典』, 『通志』 등의 百濟傳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大姓八族이 가장 처음으로 기록된 『隋書』가 아닌 『通典』에 기록된 대성팔족을 토대로 大姓八族을 이해하고 있다. 『通典』에 기록된 沙씨, 燕씨, 荔씨, 解씨, 眞씨, 木씨, 昔씨이다. 이에 대해서는 오택현, 「백제(百濟) 대성팔족(大姓八族)과 예(彌)씨」, 『동아시아문화연구』 제84집, 2021.에 관련 내용과 이해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참고하면 된다.

6) 村山正雄, 「百濟の大姓八族について」, 『山本博士還曆記念東洋史論叢』, 山川出版社, 1972.

7) 최근에는 고고학적 자료를 함께 사용하면서 지역적 기반을 찾고자 하였다. 이는 오택현, 「백제 복성(複姓)의 출현과 그 정치적 배경」, 『역사와 현실』 제88호, 2013, 174~176쪽 연구사 정리에 관련된 대표논문을 정리해 놓았기에 참고하면 된다.

되고, 완성되었는지에⁸⁾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다.⁹⁾ 대성팔족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그것이 성립된 시점과 완성된 시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성팔족이 성립되어 중국에 알려지게 된 시기를 바탕으로 대성팔족의 성립과 완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성팔족의 성립과 완성은 사비기 백제의 복잡한 상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 百濟 大姓八族 기록 검토

고구려·백제·신라는 중국으로부터 문화를 수용하면서 발전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문화를 각 나라의 사정에 맞춰 변용하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중 하나가 姓氏 문화이다. 백제의 성씨 문화는 고구려·신라와 구별되는 독특한 모습을 보이는데,¹⁰⁾ 그중 하나가 大姓八族의 존재이다.

대성팔족이란 백제에 존재하는 8개의 大姓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백제 귀족층을 뜻한다. 이들의 존재는 국내 사서가 아닌 중국 사서에 기

8) 여기서 성립이란 대성팔족이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로도 볼 수 있고,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시기로도 볼 수 있다. 본고에서 이야기하는 성립은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시기, 즉 최종적으로 백제 대성팔족이 확정되는 시기를 상정하였음을 밝힌다.

9) 노중국, 『百濟政治史研究』, 일조각, 1988, 183~185쪽에 관련 내용이 일부 보인다. 이후 저자의 저서(『백제사회사상사』, 지식산업사, 2010; 『백제의 대외 교섭과 교류』, 지식산업사, 2012; 『백제 정치사』, 일조각, 2018 등)에서도 대성팔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비정하기 보다는 백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집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성팔족의 양태를 살펴보았다.

10) 오택현, 앞의 논문, 2013, 186~193쪽.

록되어 있다. 대성팔족이 가장 처음 기록된 사서는 『隋書』이다. 이후 『北史』, 『翰苑』, 『通典』, 『新唐書』, 『通志』에 대성팔족이 기록되었다. 총 6개의 사서에 대성팔족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에 대성팔족을 기록하고 있는 자료를 먼저 검토하고자 한다.

대성팔족을 기록하고 있는 사서 중에서 가장 먼저 편찬된 것은 『수서』이다. 『수서』가 정확히 언제 편찬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수서』의 편찬자인 위징(580~643)의 생몰연대를 토대로 사서의 작성 시점을 살펴보면 629년에서 639년 사이에 편찬된 것으로 이해된다.¹¹⁾ 『북사』는 당 태종 정관 원년~고종 현경 4년(627~659) 사이 이연수가 아버지 대사의 뜻을 받들어 개인이 편찬했다. 『한원』은 당 고종 현경 5년(660)에 장초금(?~689)이 찬술했다고 알려져 있다. 편찬자 생몰연대와 작성시기를 고려해보면 대성팔족은 『수서』에 가장 처음으로 기록되었다.

즉 대성팔족이 처음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7세기 전반이다. 사서는 그것을 작성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수집한 후,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그렇다면 『수서』가 629년에서 639년 사이에 편찬되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사서에 쓰인 내용은 늦어도 7세기 초반의 정보를 담고 있을 것이다. 『수서』 85권 중, 대성팔족 기록은 81권인 동이전 백제에 보인다. 중국에서는 주변의 다양한 국가의 모습을 열전에 기록하고 있다. 백제전도 그러한 기조 속에서 기록 되었을 것이다.

『수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음으로 대성

11) 『北史』가 가장 먼저 편찬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北史』는 편찬자인 이연수(李延壽)가 627년부터 659년 사이에 『北史』를 편찬했다고 알려진다. 『隋書』와 『北史』의 편찬 시기 중 가장 이른 시기를 본다면 『隋書』는 629년, 『北史』는 627년이다. 또 조선시대 실학자들이 『北史』를 통해 대성팔족을 이해하였다(『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등). 그러나 두 사서의 명확한 완성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前史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현재 『隋書』가 『北史』보다 먼저 작성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팔족이 기록되기 때문이다. 중국정사 조선전을 검토해보면 대부분 기존에 편찬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래서 이전에 작성된 사서에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등장한다면, 이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성팔족이 『수서』에 처음 등장하는 것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수서』 편찬 당시 백제 사회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변화 중 하나가 대성팔족이었음을 『수서』의 찬자들이 인식했기에 『수서』에 처음으로 대성팔족이 기록될 수 있던 것이다.

백제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수서』에 앞서 작성된 周書와의 검토를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을 듯하다. 실제로 『주서』와 『수서』는 비슷한 내용이 상당수 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서』에는 기록되어 있는 대성팔족이 『주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A-1. 송(宋) 원가력(元嘉曆)을 채용하여 일찍부터 인월(寅月)로 세수(歲首)를 삼았다. 또 또 의약·복서 및 점치고 관상 보는 법도 알고 있었다. 투호와 저포 등의 여러 가지 놀이가 있으나 바둑이나 장기를 더욱 좋아한다. 중과 비구니, 절, 탑은 매우 많으나, 도사(道家類)는 없다. 세금은 베·명주·삼베 및 쌀 등으로 그 해의 풍흉을 헤아려 차등있게 바치게 하였다. 그 나라의 형벌은 모반하거나 전쟁에서 퇴각한 자 및 살인을 한 사람은 참수하였다. 도적질한 사람은 유배시키고 도적질한 물품의 배를 징수하였다. 부인으로서 간통죄를 범하면 남편 집의 계집종으로 삼았다. 시집 장가드는 절차는 대략 중국의 풍속과 같다. 부모나 남편이 죽으면 3년동안 상복을 입고, 그 나머지 친척에게는 장례가 끝나면 상복을 벗었다. 토지는 낮고 습하였으며 기후는 따뜻하다. 五穀과 각종 과일·채소 및 술·음식·반찬·의약품은 거의 중국과 같고, 낙타·당나귀·노새·양·거위·오리 따위는 없다. 그 나라의 왕은 매 계절의 중월(仲月)에 하늘과 오제(五帝)

의 신에게 제사 지내고, 또 해마다 네 번씩 그의 시조 구태(仇台)의 사당에 제사드린다.¹²⁾

A-2. 의복은 고[구]려와 대략 같다. 부인은 분을 바르거나 눈썹을 그리지 아니하고, 처녀는 머리를 땅아 뒤로 드리웠다가 시집을 가면 두 갈래로 나누어 머리 위로 틀어 올린다. 풍속이 말타기와 활쏘기를 숭상하며, 고서와 사서를 읽고, 관리의 일도 잘 본다. 또 의약·시귀(蓍龜)·고상술도 안다. 두 손을 땅에 닿게하는 것으로 공경을 나타냈다. 승니(僧尼)가 있고, 사탑(寺塔)이 많다. 고각(鼓角)·공후(箜篌)·쟁(箏)·우(竽)·호(篋)·적(笛)의 악기가 있고, 투호·위기·저포·악삭·농주의 놀이가 있다. 송의 원가력을 사용하여 인월을 세수로 삼는다. 나라 안에는 여덟 씨족의 대성(大姓)이 있으니, 사(沙)씨·연(燕)씨·리(弼)씨·해(解)씨·정(貞)씨·국(國)씨·목(木)씨·백(苜)씨이다. 결혼하는 예절은 대개 중국과 같고, 상제는 고[구]려와 같다. 5穀과 소·돼지·닭이 있으나 대개 火食을 하지 않는다. 토지는 낮고 습하여 사람들은 모두 산에서 산다. 굶은 밤(栗)이 난다. 해마다 매 계절의 중월에 왕은 하늘 및 오제의 신에게 제사한다. 그 시조 구태의 사당을 도성 안에 세워 놓고, 해마다 네 번씩 제사한다. 나라의 서남쪽에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15군데 있는데, 모두 성읍(城邑)이 있다.¹³⁾

12) “用宋元嘉曆，以建寅月爲歲首。亦解醫藥卜筮占相之術。有投壺，樗蒲等雜戲，然尤尚奕棋。僧尼寺塔甚多，而無道士。賦稅以布絹絲麻及米等，量歲豐儉，差等輸之。其刑罰：反叛，退軍及殺人者，斬；盜者，流，其贓兩倍徵之；婦人犯姦者，沒入夫家爲婢。婚娶之禮，略同華俗。父母及夫死者，三年治服；餘親，則葬訖除之。土田下濕，氣候溫暖。五穀雜果菜蔬及酒醴餽饌藥品之屬，多同於內地。唯無駝驢騾羊鵝鴨等。其王以四仲之月，祭天及五帝之神。又每歲四祠其始祖仇台之廟。”(『周書』列傳 異域 上百濟)

13) 其衣服與高麗略同。婦人不加粉黛，女辮髮垂後，已出嫁則分爲兩道，盤於頭上。俗尙騎射，讀書史，能吏事，亦知醫藥·蓍龜·占相之術。以兩手據地爲敬。有僧尼，多寺塔。有鼓角·箜篌·箏·竽·篋·笛之樂，投壺·圍棋·樗蒲·握槊·弄珠之戲。行宋元嘉曆，以建寅月爲歲首。國中大姓有八族：沙氏·燕氏·弼氏·解氏·貞氏·國

『주서』는 618년에서 628년 사이에 기록된 사서로 630년 무렵에 편찬된 『수서』보다 앞서 작성되었다. 그래서 『수서』에는 『주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수 보인다. 특히 문화와 관련해서는 A-1과 A-2의 사료에 보이는 밑줄 친 부분이 주목된다. 송(宋)의 원가력(元嘉曆)을 채용하는 부분과 결혼 관련 부분이 동일하게 서술되어 있다. 또 국가 행사인 시조묘 관련 부분도 동일하다.

그런데 『수서』의 대성팔족 관련 기사는 『주서』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대성팔족 관련 기사는 『수서』를 편찬할 때 보입된 내용이 틀림없다. 비슷한 시기에 편찬되었더라도 후대에 저술된 『수서』에 처음으로 대성팔족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은 대성팔족에 대한 정보가 후대에 추가되어 기입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⁴⁾

또한 『수서』와 비슷한 시기에 작성되었다고 여겨지는 『북사』에서도 대성팔족을 기록하고 있고, 660년에 찬술된 『한원』 역시 대성팔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대성팔족의 존재는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반 무렵 중국인들에게 전달되어 인지된 것으로 보인다.¹⁵⁾ 이후

氏·木氏·苻氏. 婚娶之禮, 略同於華. 喪制如高麗. 有五穀·牛·豬·雞. 多不火食. 厥田下濕, 人皆山居. 有巨粟. 每以四仲之月, 王祭天及五帝之神. 並其始祖仇台廟於國城. 歲四祠之. 國西南人島居者十五所, 皆有城邑(『隋書』列傳 東夷 百濟).

14) 물론 『주서』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수서』 편찬시에 그 관념이 성립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주서』의 편찬자들이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서』에는 새로운 내용이 많이 담겨있다. 백제의 5佐平이 있었다는 것과 같이 기존과는 다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아 대성팔족의 존재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수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편찬된 『북사』와 『한원』에서 대성팔족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수서』를 편찬할 시점에 중국인들이 백제의 대성팔족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백제에서는 그 이전에 성립되었을 수는 있지만, 중국인들에게 대성팔족의 존재가 각인된 것은 『수서』 편찬과 맞물려 생각해야 할 것이다.

15) 사서의 편찬자들이 직접 백제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기록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唐 초기에 많은 사서를 편찬하고 있었다는 점, 다양한 주변부의 상황을 사서에 기

『수서』와 『북사』, 『한원』에 대성팔족 관련 기록이 남게 된 것이다.

또한 백제가 멸망한 이후 작성된 『통전』(8세기)을 비롯하여 11세기에 작성된 『신당서』¹⁶⁾, 12세기에 작성된 『통지』에도 대성팔족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대성팔족이 백제 멸망기까지 유력집단으로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백제에 대해 기록할 때 대성팔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제 멸망 무렵에도 대성팔족은 백제 내에서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대성팔족이라고 전하는 8개의 성씨는 사서에 따라 차이가 나는 데, 비슷한 글자라는 점에서 옮겨 쓰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생각된다. 대성팔족이 기록된 기록을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백제 대성팔족 기록 비교¹⁷⁾

사서	백제 대성팔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수서』	沙氏	燕氏	苧氏	解氏	貞氏	國氏	木氏	苜氏
『북사』	沙氏	燕氏	苧氏	解氏	眞氏	國氏	木氏	苗氏
『한원』	沙氏	燕氏	苧氏	解氏	眞氏	-	木氏	首氏
『통전』	沙氏	燕氏	苧氏	解氏	眞氏	國氏	木氏	苜氏
『신당서』	沙氏	燕氏	苧氏	解氏	貞氏	國氏	木氏	苜氏
『통지』	沙氏	燕氏	苧氏	解氏	眞氏	國氏	木氏	苜氏

록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서』의 편찬자들이 백제 관련 내용을 직접 파악하고, 그 중에서 새로운 내용을 인지한 뒤 『수서』에 기록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16) 『신당서』에는 기록되었지만 『구당서』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신당서』가 『구당서』와의 차별화를 위해 서술방식에서 차별을 두었다는 견해가 있다. 『구당서』의 경우 五代 시기에 편찬되어 송나라의 시대적,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공인史料로 삼기 어려웠기에 『신당서』를 편찬했다고 한다(安芮璠, 「《新唐書》와 《舊唐

〈표 1〉은 대성팔족의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백제의 대성팔족이라고 전하는 8개의 성씨 순서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백제 대성팔족이 가장 먼저 기록된 『수서』 이후, 성씨의 차이가 보이는 것은 ③, ⑤, ⑥, ⑧ 총 4개이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록을 옮겨 적는 과정이나 들은 내용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비슷한 한자로 잘못 기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③에서는 𪛗가 𪛘으로, ⑤에서는 貞이 眞으로, ⑧에서는 𪛗과 𪛘와 首와 𪛗으로 비슷한 자형의 한자가 기록된 것이다. ⑥은 백제의 대성팔족이 기록된 순서가 동일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한원』에서는 대성팔족임에도 불구하고 7개의 성씨만 기록되어 있고, 빠진 1개의 성씨는 國임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기존의 사서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점은 ③, ⑤, ⑧에서 확인되므로 누락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의 표를 보면 동일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대성팔족이 처음으로 기록된 『수서』의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대성팔족 성립의 하한이 『수서』가 편찬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전 사서와의 연관성을 염두에 둔다면 『수서』의 대성팔족 기록은 6세기 말 혹은 7세기 기록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6세기 말 혹은 7세기 백제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당시 백제 상황을 이해한다면 대성팔족이 성립된 시점과 이유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書』의 서사비교, 『中國語文論叢』 제90호, 2018, 132~133쪽).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구당서』에 기록되지 않은 백제의 기록을 『신당서』에 수록한 것이 아닌가 한다. 『통전』 이후 약 300년 뒤에 『신당서』가 작성되는데, 여기서 대성팔족이 다시 등장한다는 것은 『구당서』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신당서』에 추가한 내용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17) 이 표는 오택현, 앞의 논문, 2021, 17쪽에 기록된 표를 재인용한 것이다. 가로는 대성팔족이 기록된 순서를 순차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세로는 시기 순서로 정리했다.

III. 대성팔족의 완성과 광고

대성팔족은 중국에 그 관련 정보가 전달되기 이전에 성립되었다. 즉 대성팔족에 관한 정보가 7세기 무렵 중국에 전달되었다면 그에 앞서 성립, 더 나아가 완성되었을 것이다. 대성팔족이 『수서』에 처음으로 기록되었기에 늦어도 7세기 초의 백제 상황이 중국에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위덕왕~무왕 시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덕왕은 중국과 다양한 교류를 시도했고,¹⁸⁾ 무왕 초기도 중국과 상당수 교류가 진행되었다. 교류 과정에서 대성팔족에 대한 정보가 중국에 전달되었을 것이다.¹⁹⁾ 물론 중국 측의 관찰자가 백제의 상황을 보고 대성팔족에 대한 내용을 기입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사서가 편찬되고 있었고, 주변국의 다양한 현실을 기록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백제를 염두에 두고 조사 한 뒤 그 내용을 기록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당이 건국된 뒤, 주변국에서 당에 조공을 바칠 때, 그 과정에서 자국의 상황을 당에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한성에서 웅진으로 피난을 간 백제 왕실의 권위는 심각하게 실추되었다. 6세기대의 백제 왕실은 실추된 권위 회복과 웅진기에 일어난 왕의 피

18) 양기석, 「백제 위덕왕대 왕권의 존재형태와 성격」, 『百濟研究』 제21집, 1990, 37~53쪽에 의해 위덕왕대의 왕권이 강화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이후 양기석, 「威德王代の 대외관계」, 『선사와 고대』 제19호, 2003(『백제의 국제관계』, 서경문화사, 2013, 94~132쪽 재수록)에 의하면 위덕왕의 왕권강화를 중국과의 관계성 속에서 찾으려고 노력했다. 오택현, 「百濟 威德王의 왕권 강화와 益山」, 『中央史論』 제52집, 2020c.에서는 중국과의 관계성과 함께 왕궁리 初築이 위덕왕 시기에 만들어진 가능성을 통해 위덕왕의 왕권 강화를 살펴보았다.

19) 무왕은 『수서』의 편찬시기가 630년대라고 한다면 600년에 즉위한 무왕 시기의 백제 상황도 중국에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위덕왕과 무왕 시기를 검토하고자 한다.

살 및 반란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곳으로 도읍지를 옮겨야 했다.²⁰⁾ 이에 계획적으로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었고, 그 결과 동성왕과 인연이 있던 사비를 새로운 도읍지로 채택하여 계획 도시를 건설하였다.²¹⁾ 도시 건설을 완료한 성왕은 재위 16년(538)에 웅진에서 사비로 도읍지를 옮겼다.²²⁾

이때부터 백제는 국호를 부여(남부여)라고 하였다. 백제 왕실이 부여씨임을 강조하고자 국호에 남부여라고 칭한 것이다. 이는 왕성인 부여를 국호에 집어넣음으로써 왕실의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국호를 남부여라고 칭한 독특한 사건은 아마도 백제와 백제 왕실을 강조함으로써 혼란스러운 백제 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하였던 백제 왕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²³⁾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잡하던 성씨 집단에서도 몇몇 변화가 목격된다.

B-1. 12월에 백제의 성명왕(聖明王)이 전의 조서를 가지고 널리 군신(群臣)에게 보이며, “천황의 조칙이 이와 같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하였다. 상좌평 사택기루(沙宅己婁), 중좌평 목리마나(木苧麻那), 하좌평 목윤귀(木尹貴), 덕솔 비리막고(鼻利莫古), 덕솔 동성천도(東城天道), 덕솔 목리매순(木苧昧淳), 덕솔 국수다(國雖多), 나솔 연비선나(燕比善那) 등이 의논하여 ... (하략)²⁴⁾

20) 노중국은 사비지역을 사씨의 근거지로 보기도 했으며(노중국, 앞의 책, 1988, 147쪽), 김주성은 귀족세력으로부터 벗어난 강력한 전제왕권을 형성하기 위해 천도했다고 본다(김주성, 「백제 사비시대 정치사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45쪽).

21) 사비지역이 계획도시라는 것은 박순발, 「사비도성의 구조에 대하여」, 『백제연구』 제 31집, 2000. 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이후에도 박순발에 의해 꾸준히 사비도성이 계획도시라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사비도성이 계획도시라는 견해가 큰 힘을 얻었다.

22) “春 移都於泗泚[一名所夫里] 國號南扶餘.”(『三國史記』百濟本紀 聖旺 16년조)

23) 오택현, 「百濟 王姓 扶餘씨의 성립과 複姓의 수용」, 『木簡과 文字』 제23호(2019), 162~164쪽.

위의 사료는 백제 내부의 상황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여기에는 국가의 중요 논의 사항에 참여한 인물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沙宅己婁, 木苧麻那, 木尹貴, 鼻利莫古, 東城天道, 木苧昧淳, 國雖多, 燕比善那로, 이 중 후에 대성팔족으로 성장하는 성씨는 사씨, 목씨, 국씨,²⁵⁾ 연씨 4개 성씨이다.

또한 상좌평으로 사씨(사택기루)가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상좌평은 전지왕때 처음 설치되어 왕족인 부여씨와 왕비족에게 부여된 관직이었다.²⁶⁾ 하지만 B-1에서는 상좌평이 사씨에게 주어지고 있어 성왕 무렵 사씨가 중요한 세력으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씨는 한성기에 좌장으로 백제 중앙에 진출한 후, 웅진기에 내법좌평까지 역임하였다. 이후 꾸준히 백제 중앙에서 활약하다가 사비기에는 상좌평에 오를 정도로 강력한 성씨 집단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²⁷⁾

그런데 그동안 좌평에서 분화한 상좌평에 대한 기록만 있었는데, B-1에 따르면 상좌평뿐만 아니라 중좌평과 하좌평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좌평과 하좌평으로 목씨가 언급되고 있다. 이를 본다면 상좌평과 중좌평, 하좌평을 역임하고 있던 사씨와 목씨는 웅진기 백제에서 왕 다음으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성씨 집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²⁸⁾

24) “十二月 百濟聖明王 復以前詔 普示群臣曰 天皇詔勅如是 當復何如 上佐平沙宅己婁·中佐平木苧麻那·下佐平木尹貴·德率鼻利莫古·德率東城道天·德率木苧昧淳·德率國雖多·奈率燕比善那等(下略)”(『日本書紀』 欽明天皇 4년 12월조)

25) 國씨는 이때 처음 등장하는 성씨이기 때문에 사비 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이상의 정보를 알기 어렵다.

26) “拜餘信爲上佐平 委以軍國政事. 上佐平之職 始於此 若今之家宰.”(『三國史記』 百濟本紀 腆支王 4년 春正月조)

“上佐平餘信卒 以解瀆爲上佐平”(『三國史記』 百濟本紀 毗有王 3년 冬10월조)

27) 오택현, 「百濟 沙氏の 정치적 位相」, 『新羅文化』 제57집, 2020b, 292~295쪽; 박운우, 「백제 사씨(沙氏) 세력의 부상과 세력 기반」, 『百濟學報』 제35호, 2021, 14~16쪽.

28) 노중국, 앞의 책, 1988, 162~167쪽; 양기석, 「百濟專制王權成立過程研究」, 단국

아울러 왕명을 사용한 동성씨와 기타 성씨인 비리씨도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성씨 집단이 사비기 초반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한성기와 웅진기에 보이던 고구려계·부여계·중국계 유이민·기타 성씨 집단 역시 사비기 초반에 확인된다. 하지만 사비기에 들어 대성팔족으로 언급되는 성씨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²⁹⁾ 후대 대성팔족이 되는 성씨가 더 많이 보인다는 점은 백제 사회가 대성팔족 위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한성기와 웅진기에는 여러 성씨 집단이 확인된다. 하지만 성왕부터 무왕대까지는 대성팔족에 속하는 성씨 집단이 많이 확인된다. 그래서 이 시기를 대성팔족이 성립되어가던 과도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³⁰⁾ 사비로 천도한 이후, 대성팔족의 면모가 점차 갖추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성왕부터 무왕에 이르는 시기에 대성팔족이 점차 성립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당시 백제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나아가 대성팔족의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당시 백제 사회에서 대성팔족은 특권 집단인 동시에 왕실의 집중관리를 받는 족단이었기 때문이다.

성왕대부터 대성팔족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면, 대성팔족의 성립시기(국가적 공인)는 성왕 이후~7세기 전반 무왕대로 봐도 좋을 듯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기의 백제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 혼란한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150~161쪽; 김주성, 앞의 논문, 1990, 7~47쪽.

29) 오택현, 앞의 논문, 2020a, 82~83쪽의 <표 3-1>에 529년부터 636년 사비기 『三國史記』와 『日本書紀』에 보이는 성씨를 정리한 표가 있어 이를 참고하면 된다.

30) 『일본서기』에 의하면 다양한 성씨 집단이 나오는데 백제의 관등을 사용하는 왜계 백제관료와 지역을 관칭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왜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백제에서 활동하던 성씨 집단을 파악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백제의 관등과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백제에서 활동하던 성씨 집단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상황에서 대성팔족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백제의 상황이 특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혼란한 상황과 대성팔족의 성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백제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백제 대성팔족이라는 용어는 귀족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아닐 것이다. 나라에 한정된 숫자의 대성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스스로 칭하기 보다는 그 사회 내 동의를 있어야 가능하다. 고대사회에서는 왕이 최고 권력자라는 점에서 왕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혼란스러운 백제 사회라 하더라도 왕이 존재하고 있기에 귀족들이 스스로 8개의 대성 집단을 설정하고, 그것을 중국에 전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에 전달된 대성팔족이란 존재는 결과적으로 왕이 그들을 용인해야 가능하다. 또 <표 1>에서 확인했듯이 대성팔족이 시기에 따라 포함되는 성씨나 기록 순서가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점으로도 백제 사회에서의 동의가 있었을 것이다. 즉 백제 왕이 허용해주고, 성씨 집단이 동의한 집단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본다면 백제 왕은 왜 대성팔족이라는 8개의 성씨 집단을 만들어냈던 것일까.

위덕왕 시기부터 무왕 시기까지는 백제사에 있어서 혼란의 연속이었다.³¹⁾ 관산성 전투 이후 위덕왕의 권위는 떨어졌고, 혜왕과 법왕은 즉위한 지 1년 만에 죽었다. 또한 무왕도 『삼국유사』의 기록으로 보면 정통성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왕위에 올랐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혼란

31) 물론 위덕왕 15년 이후 중국 남·북조와 외교관계를 맺고, 일본에도 불상 등의 문물을 전해줄 수 있을 정도로 백제 내부 사정이 안 좋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관산성 전투 이후 『日本書紀』를 통해 백제의 상황을 살펴보면 耆老들에 의한 견제, 승려가 되고자 하는 위덕왕 등 견제를 많이 받았던 것이 확인된다. 외교관계를 통해 타개하려는 노력을 보였지만, 귀족들의 견제는 지속되었을 것이며, 뒤이어 즉위한 법왕과 혜왕이 1년만에 죽었다. 무왕은 『삼국유사』에 의하면 출자가 불분명해 방계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덕왕 시기부터 무왕 시기까지의 정치적인 면을 살펴보면 백제사의 혼란으로 정의할 수 있을 듯하다.

한 시기였기 때문에 왕과 귀족이 각자의 목적을 위해 타협을 했고, 그 과정에서 대성팔족이 성립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³²⁾

위덕왕과 무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유력 성씨 집단을 통제하고 그들을 대성팔족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의 부재일 수는 있지만 백제의 성씨 집단을 검토해보면 대부분 대성팔족에 속한다. 이는 대성팔족이 백제 사회에서 다른 성씨 집단에 비해 적극적으로 활약(활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현재 기록상 확인되는 성씨 집단 중 대성팔족이 높은 관직을 역임하고 있었다는 점과 연결된다.

왕이 대성팔족을 용인해준 이유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웅진기를 보면 한성기에 비해 더욱 많은 성씨 집단이 보인다. 대성팔족만 보더라도 한성기에는 진씨, 해씨, 사씨, 목씨가 보이지만, 웅진기에는 한성기에 보이는 4개의 성씨 이외에도 연씨, 백씨가 보인다는 점에서 성씨 집단이 증가함을 엿볼 수 있다. 사비기에 들어 이전보다 더 많은 성씨 집단이 보인다. 고구려와 신라는 사성을 통해 성씨를 부여하였으나, 백제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와 신라에 비해 더 다양한 성씨가 확인되고 있다. 이 때문에 백제의 여러 성씨가 동북 지역의 칭성(稱姓) 방법에 착안하여 스스로 칭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³³⁾

고구려와 신라에서는 사성을 통해 성씨를 받게 되면 자연스레 최고 귀족이 되었다. 왕은 성씨를 내려줌으로써 귀족들을 통제하고, 귀족은 성씨를 부여받음으로써 자신들의 특권을 향상시켰다. 백제는 이러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성씨를 통해 귀족들을 통제하고자 했을 것이다.

앞서 백제에는 다양한 성씨 집단이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성씨 집단의 특권 의식을 부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성기보다

32) 장미애, 「백제 후기 정치 세력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116~117쪽; 노중국, 「백제 무왕의 出系와 천하관」, 『百濟學報』 제25호, 2018, 9~17쪽.

33) 오택현, 앞의 논문, 2013, 180쪽.

웅진기에, 그리고 사비기에 더 많은 성씨 집단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백제에서는 성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특권 의식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왕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한성에서 웅진으로 도읍지를 옮겼고, 웅진에서 왕이 시해 당하였다. 성왕에 의해 사비로 천도한 후 백제 사회가 안정되는 듯하였다. 하지만 위덕왕은 무리한 출정을 감행하였고,³⁴⁾ 그 결과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해, 그 책임을 지게 되었다.³⁵⁾ 위덕왕은 귀족들에 의해 왕권이 견제를 받자 대외적 교류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왕권 강화를 위한 대내적 수단으로 유력한 귀족들을 설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 결과 대성팔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백제의 대성팔족 공인은 귀족 입장에서 자신의 세력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그로 인해 세력을 인정받은 8개의 세력은 그를 유지하기 위해 왕권을 지지하였을 것이다. 한편 왕은 귀족 집단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에게 우호적인 집단을 형성할 수 있음은 물론, 국정 운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8개의 집단(대성팔족)을 통해 다른 성씨 집단을 통제할 수도 있었으므로 그들을 대성팔족으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대성팔족은 왕권 강화의 시책 중 하나로 성립된 것이다. 특히 대성팔족이라는 용어는 성씨

34) “餘昌謀伐新羅 耆老諫曰 天未與 懼禍及 餘昌曰 老矣 何怯也 我事大國 有何懼也 遂入新羅國 築久陀牟羅塞 其父明王憂慮 餘昌長苦行陣 久廢眠食 父茲多闕 子孝希成 乃自往迎慰勞 新羅聞明王親來 悉發國中兵 斷道擊破…餘昌遂見圍繞 欲出不得 士卒違駭 不知所圖 有能射人 筑紫國造 進而彎弓 占擬射落新羅騎卒最勇壯者”(『日本書紀』 欽明天皇 15년 12월조)

35) “八月 百濟餘昌 謂諸臣等曰 少子今願 奉爲考王 出家修道 諸臣百姓報言 今君王欲得出家修道者 且奉教也 嗟夫前慮不定 後有大患 誰之過歟 夫百濟國者 高麗·新羅之所爭欲滅 自始開國 迄于是歲 今此國宗 將授何國 要須道理分明 應教 縱使能用耆老之言 豈至於此 請俊前過 無勞出俗 如欲果願 須度國民 餘昌對曰 諾 卽就圖於臣下 臣下遂用相議 爲度百人 多造幡蓋 種種功德 云云”(『日本書紀』 欽明天皇 16년 8월조)

집단이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없다. 국왕의 승인 하에 대성팔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왕권과 귀족 간 타협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성팔족으로 명명된 성씨 집단은 특권계층이 되면서 백제 왕실과 더욱 밀접하게 관계를 맺었다.³⁶⁾

국내 사서에서 보이지 않는 대성팔족이라는 용어가 중국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중국과 백제가 교류하고 있어야 관련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위덕왕 시기에는 중국과 많은 교류가 이루어졌다. 위덕왕 시기 백제는 남조와의 교류뿐만 아니라 북조와도 교류를 시작하였다. 위덕왕 시기 대중국 교류 기사는 아래와 같다.

- C-1. 수(隋) 개황(開皇) 초(581~598), 여창(위덕왕)이 또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쳤다. 그를 상개부(上開府) 대방군공(帶方郡公) 백제왕(百濟王)으로 삼았다.³⁷⁾
- C-2. 개황(開皇) 18년(598), 여창(위덕왕)이 그 장사(長史) 왕변나(王辯那)를 보내 방물을 바쳤다.³⁸⁾
- C-3. 대업(大業) 2년(607), 장(무왕)이 사신으로 연문진(燕文進)을 보내 조공하였다. 그해 또 왕효린(王孝鄰)을 사신으로 보내 들어가 바치고, 고구려를 토벌하기를 청하였다.³⁹⁾
- C-4. 대업(大業) 7년 수 양제가 친히 고구려를 정벌하자 장(무왕)이 그의 신하 국지모(國知牟)를 보내 군기(軍期)를 청하였다. 양제가 크게 기뻐하며 후하게 상을 내리고, 상서기부랑(尙書起部郎) 석률(席律)을 백제에 보

36) 오택현, 앞의 논문, 2013, 199~202쪽.

37) “隋開皇初 餘昌又遣使貢方物 拜上開府·帶方郡公·百濟王.”(『隋書』列傳 東夷 百濟)

38) “開皇十八年 昌使其長史王辯那來獻方物.”(『隋書』列傳 東夷 百濟)

39) “大業三年 璋遣使者燕文進朝貢. 其年 又遣使者王孝鄰入獻 請討高麗.”(『隋書』列傳 東夷 百濟)

내어(군기를) 서로 알게 하였다.⁴⁰⁾

C-5. 대업(大業) 10년 다시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후에 천하가 어지러워지자 사신의 왕래가 끊겼다.⁴¹⁾

기사는 대성팔족이 기록된 『수서』에 기록된 내용이다. C-1~5를 보면 500년대 말부터 614년까지 백제의 수에 대한 조공 및 사신 파견이 꾸준히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빈번한 교류가 있었던 만큼 그 무렵 백제 왕실은 대성팔족을 인정한 사실을 전달하였을 것이다. 대성팔족의 시작은 웅진기에 이미 조성되었다고 여겨진다. 여러 대성팔족으로 성장하는 세력이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다양한 성씨 집단 속에서 대성팔족으로 확정된 것은 사비기이다.⁴²⁾ 이는 중국에 대성팔족이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 『수서』이기 때문이다.

사비기 중에서는 대성팔족이 처음으로 기록된 『수서』를 검토한 결과 위덕왕 말에서 무왕 초에 수나라에 수차례 조공을 바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대성팔족이 완성되어 중국에 알려진 시점은 수차례 조공 중에서 그 존재가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전달받아 『수서』에 기록된 것이다. 대성팔족이 완성되고 중국에 그 존재가 알려진 것은 위덕왕 말에서 무왕 초에 이루어진 것이다.

40) “(大業)七年 帝親征高麗 璋使其臣國智牟來請軍期. 帝大悅 厚加賞錫 遣尙書起部郎席律詣百濟 與相知.”(『隋書』列傳 東夷 百濟)

41) “(大業)十年 復遣使朝貢. 後天下亂 使命遂絕.”(『隋書』列傳 東夷 百濟)

42) 노중국, 앞의 책, 1988, 184~185쪽.

IV. 百濟 大姓八族과 東아시아 8姓의 의미

대성팔족이라는 용어는 대성인 8개의 족, 즉 8개의 성씨 집단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성팔족은 사료에 기록된 시기와 당시 중국과의 관계 기사를 통해 보면 위덕왕 말기부터 무왕 초기에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성팔족은 왕권과 대성팔족의 합의에 따라 형성되었다. 그렇다면 대성팔족의 합의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한성기에는 왕비족인 진씨와 해씨가 많이 보인다.⁴³⁾ 여기에 대성팔족 중에는 사씨와 목씨가 보인다.⁴⁴⁾ 즉 한성기에는 대성팔족이라고 하는 8개의 성씨 중 4개만 확인된다. 물론 대성팔족이 아닌 성씨들도 보이는데 한성기 마지막인 개로왕 시기에 보인다.⁴⁵⁾

43) 盧重國, 「解氏와 扶餘氏의 王室交替와 初期百濟의 成長」, 『金哲堉博士 華甲紀念 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3; 정재운, 「初期 百濟의 成長과 眞氏 勢力의 動向」, 『歷史學研究』 제29집, 2007 등 참조.

44) “七年 春二月 以真武爲兵官佐平 沙豆爲左將”(『三國史記』百濟本紀 阿莘王 7년 2월조)

“春三月 以荒田別·鹿我別爲將軍 則與久氐等 共勒兵而度之 至卓淳國 將襲新羅 時或曰 兵衆少之 不可破新羅 更復 奉上沙白蓋盧 請增軍士 卽命木羅斤資 沙沙奴跪 [是二人 不知其姓人也 但木羅斤資者 百濟將也](『日本書紀』神功皇后 49년 春 3월조)

“百濟記云 壬午年 新羅不奉貴國 貴國遣沙至比跪令討之 新羅人莊飾美女二人 迎誘於津 沙至比跪 受其美女 反伐加羅國 … (中略) … 加羅國王妹既殿至 向大倭啓云 天皇遣沙至比跪 以討新羅 而納新羅美女 捨以不討 … (中略) … 天皇大怒 卽遣木羅斤資 領兵衆來集加羅 復其社稷 … (下略)”(『日本書紀』神功皇后 62년조)

45) 개로왕이 중국에 보낸 표와 『삼국사기』 개로왕 23년 마지막 세주에 다양한 성씨가 보이고 있다.

한성에서 웅진으로 도읍지를 옮긴 백제는 한성지역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과 웅진지역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세력이 대립했다.⁴⁶⁾ 이와중에 후대 대성팔족이 되는 연씨와 백씨가 등장하게 된다.⁴⁷⁾ 그런데 웅진기에는 후대 대성팔족이 되는 성씨 집단 이외에도 한성기보다 더 많은 성씨 집단이 보인다.⁴⁸⁾ 이와 관련하여 개로왕이 보낸 표와 동성왕이 보낸 표를 보면 성씨 집단의 양상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개로왕의 표에는 부여씨가 주로 기록되어 있지만, 동성왕의 표에는 대성팔족을 포함하여 여러 성씨 집단이 보이기 때문이다. 동성왕 표에 보이는 여러 성씨가 모두

46) 강종원, 「百濟 熊津遷都와 貴族勢力의 動向」, 『한국고대사연구』 52, 2008; 金秉南, 「백제 웅진시대의 남방 재진출과 영역화 과정」, 『軍史』 제61호, 2006; 金榮官, 「百濟의 熊津遷都 背景과 漢城經營」, 『忠北史學』 11·12合輯, 2000; 朴賢淑, 「熊津 遷都와 熊津城」, 『百濟文化』 제30집, 2001; 梁起錫, 「熊津時代의 百濟支配層研究-王權強化政策과 關聯하여-」, 『史學志』 14권, 1980; 鄭載潤, 「熊津泗泚時代 百濟의 地方統治體制」, 『韓國上古史學報』 제10호, 1992. 등 참조.

47) 연씨를 연기지역으로, 백씨를 공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세력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이기백, 「熊津時代 百濟의 貴族勢力」, 『백제연구』 제9집, 1979), 공주에 위치한 수촌리고분군은 목씨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이경복, 「백제 웅진도읍기 공주 수촌리 재지세력 동향」, 『白山學報』 제114호, 2019) 지역으로 구분 짓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다만 한성기에 보이지 않다가 웅진기에 보인다는 점에서 새롭게 등장한 세력집단이라는 점은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48) 蓋鹵王이 보낸 表文은 『宋書』 列傳 夷蠻 百濟國에, 東城王이 보낸 表文은 『南齊書』 列傳 東夷傳 百濟에 기록되어 있다. 모두 관작을 요청하는 기사이다. 蓋鹵王이 보낸 表文에는 (扶)餘씨가 많이 기록되어 있으며, 東城王이 보낸 表文에는 후에 대성팔족이 되는 성씨 집단이 보이고 있다.

개로왕이 보낸 표문	동성왕이 보낸 표문
餘紀	高達
餘昆	楊茂
餘暻	會邁
餘都	沙法名
餘乂	贊首流
沐衿	解禮昆
餘爵	木干那
餘流	
麋貴	
于西	
餘婁	

대성팔족이 되지 않았지만, 동성왕이 관작을 요청할 정도의 세력이었다는 점, 모두 백제의 혼란기를 극복한 것에 대한 관작 요청이라는 점에서 당시 웅진기 백제 사회에서는 큰 활약을 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성팔족은 그 명칭이 기록된 사비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집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비시기는 한성기와 웅진기에 비해 더 많은 성씨가 등장하고 있어 대성팔족을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 8개로 성씨를 정하고 있는 이유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이에 중국에서 8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례가 보여 주목된다.

중국에서 8성을 염두에 두고 있던 것이 주(周)나라와 진(晉)나라⁴⁹⁾, 북위(北魏)에서 그 사례가 보인다. 백제가 사비기에 대성팔족이 형성된 것으로 본다면 북위에서 차용했을 가능성이 크다.⁵⁰⁾

북위의 효문제는 낙양으로 천도한 후 관료들의 호복 착용을 금지시키고, 한족 복장을 착용하게 하였다.⁵¹⁾ 더불어 한어(漢語)를 공식어로 지정,⁵²⁾ 낙양으로 이주한 鮮卑인들에게 낙양에 정착하도록 유도하였다.⁵³⁾ 또 선비와 한족의 통혼도 장려하였다.⁵⁴⁾ 이처럼 효문제는 선비의 성격에서 벗어나 한족화 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 중에 성씨 제도의 정비도 있다.⁵⁵⁾

선비는 기본적으로 복성(複姓)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선비뿐만 아

49) 晋 八姓, 即 栾, 郤, 胥, 原, 狐, 续, 庆, 伯. 《左传·昭公三年》: “栾, 郤, 胥, 原, 狐, 续, 庆, 伯, 降在皂隶.” 杜预注: “八姓, 晋旧臣之族也.”

50) 오택현, 「百濟 姓氏의 歷史的 展開와 大姓八族」,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0a, 87~88쪽.

51) 『魏書』高祖紀 太和 18년

52) 『魏書』高祖紀 太和 18년

53) 『魏書』高祖紀 太和 18년; 이공범, 『위진남북조사』, 지식산업사, 2003, 158~159쪽

54) 『魏書』高祖紀 太和 19년

55) 『魏書』高祖紀 太和 19년

나라 한족이 아닌 주변 지역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화였다. 이들은 한족화 되기 위해 복성을 단성(單姓)으로 바꾸기도 하였다. 백제 왕실 역시 부여(扶餘)씨이지만 중국에 축약하여 여(餘)씨라고 하는 것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⁵⁶⁾ 효문제는 단성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성(姓)과 족(族)을 나눠 정리하였다.⁵⁷⁾ 또 『위서(魏書)』 관씨지(官氏志)에는 중국 고대 성씨의 유래를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북위에서 8성을 제정하고 하급 관리로 등용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한다.⁵⁸⁾ 이는 흡사 한족의 대문벌의⁵⁹⁾ 지위를 8성에게 부여한 것이다.

이처럼 8성의 제정이라는 것은 특수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은 왕실에서 주도적으로 그 권한을 성씨를 통해 통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례는 일본에서도 확인된다. 8색성(色姓) 제정이 그것이다.

D-1. 冬10월 己卯朔 詔하여 “諸氏의 族姓을 고쳐 8종의 姓을 만들어, 천하의 만성을 통일한다. ‘제1 眞人, 제2 朝臣, 제3 宿禰, 제4 忌寸, 제5 道師, 제6 臣, 제7 連, 제8 稻置’라고 하였다. 이날 守山公, 路公, 高橋公, 三國公, 當麻公, 茨城公, 丹比公, 猪名公, 坂田公, 羽田公, 息長公, 酒人公, 山道公의 13氏에 眞人이라는 姓을 주었다.”⁶⁰⁾

56) 오택현, 앞의 논문, 2013, 178쪽.

57) 성(姓)과 족(族)을 정했다는 점에서 정성족(定姓族)이라고 하는데 이는 안광호, 「韓國 本貫制度의 起源과 ‘土姓 分定’ 說에 관한 검토」, 『전북사학』 제45호, 2014. 참조.

58) “(太和十九年) … 其穆陸賀劉樓於嵇尉八姓 皆太祖已降 勳著當世 位盡王公 灼然可知者 且下司州 吏部勿充猥官 一同四姓”(『魏書』 官氏志)

59) 청나라 시대의 학자인 陳毅의 저서 『魏書官氏志疏證』에 의하면 한족의 사대문벌은 范陽 盧氏, 靑河 崔氏, 滎陽 鄭氏, 太原 王氏이다. 그의 견해는 錢穆이 이어 받아 그의 저서 『國史大綱』에도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60) “冬十月己卯朔 詔曰 更改諸氏之族姓 作八色之姓 一曰眞人 二曰朝臣 三曰宿

일본의 40대 천왕인 천무(天武)천황은 율령국가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 8색성을 제정하였다. 8색성 제정은 종래의 성씨제도를 신분에 따라 성을 나누었다는 점에서 신라의 골품제도와 비슷한 면모를 보인다. 이 제도가 흥미로운 점은 국가에서 성씨를 통해 통제를 시도했다는 점과 8성으로 통제를 규정지었다는 점이다. 황족 중심의 질서 체제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황족이나 귀족, 호족들의 직책과 권위를 나타내는 칭호인 성을 통제함으로써 귀족과 호족의 힘을 제한하려고 했다. 그 결과 8색성이 정립된 것이고, 정립된 후 상위 귀족에게는 진인을 내려줌으로써 그들의 세력을 인정해주었다.⁶¹⁾

그러나 8색성이 제정되었다고 해도 실제 성이 내려진 것은 제1 진인·제2 조신·제3 숙네·제4 기촌이다. 제1 진인은 계체 이후 천왕의 근친의 후예, 제2 조신은 구 귀족, 제3 숙네는 반조계 유력 씨족, 제4 기촌은 도래계 등 유력 씨족이 그 성을 가졌다. 예전에는 신(臣)·련(連)·반조(伴造)·국조(國造)라는 신분질서를 8색성을 제정함으로써 황친을 진인, 신과 련을 조신과 숙네로 상위에 두고, 기타 씨족을 하위에 두는 새로운 신분질서를 꾀한 것이다.⁶²⁾

북위의 8성과 일본의 8색성 제정은 모두 지배귀족 가문을 재편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그 주체는 중앙이었다. 실제 북위의 8성은 대성인 4성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함으로써 그 지위를 인정해주었고, 일본의 8색성 제정도 새로운 신분질서를 모색함으로써 체계적인 율령체제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禰 四曰忌寸 吳曰道師 六曰臣 七曰連 八曰是日 守山公 路公 高橋公 三國公 當麻公 茨城公 丹比公 猪名公 坂田公 羽田公 息長公 酒人公 山道公 十三氏 賜姓曰真人”(『日本書紀』天武天皇 13년조)

61) 오택현, 앞의 논문, 2020a, 88~89쪽.

62) 연민수·김은숙·이근후·정효운·나행주·서보경·박재용, 『역주 일본서기』 3, 동북아 역사재단, 2013, 496쪽, 각주 375 참조.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백제의 대성팔족을 살펴보겠다. 백제의 대성팔족은 북위와 일본과 비슷하게 8성을 지정하였고, 이들이 상위 집단에 속해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백제의 대성팔족 역시 북위·일본과 마찬가지로 왕실 주도하에 형성되었음을 앞서 살펴본 바 있다. 웅진기를 거쳐 사비기에는 다양한 성씨 집단이 확인되고 있다. 성씨 집단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은 기록된 성씨 집단이 백제 사회 중심으로 진출했다고 봐도 좋다.

그런데 백제 사회는 사비 천도 후 안정되는 듯 보이지만 관산성 전투 이후 왕실의 권한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554년 관산성 전투에 위덕왕이 출전한 것을 기로(耆老)들이 반대했다는 기록이 있다.⁶³⁾ 관산성 전투에서 위덕왕이 승리했다면 위덕왕의 기세는 날로 높아졌을 것이지만 결과는 아버지인 성왕의 전사와 신라에 패배하였다. 이로 인해 위덕왕의 위세는 약화되었을 것이다.

위덕왕의 출전을 반대한 기로들은 『예기(禮記)』 왕제(王制)의 내용을⁶⁴⁾ 염두에 둔다면 당시 백제에 있어서 유력귀족 등을 의미한다.⁶⁵⁾ 그렇게 본다면 성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위덕왕은 전쟁 수행을 주도한 당사자였다는 측면에서 전쟁의 패배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63) “餘昌謀伐新羅 耆老諫曰 天未與 懼禍及 餘昌曰 老矣 何怯也 我事大國 有何懼也 遂入新羅國 築久陀牟羅塞 其父明王憂慮 餘昌長苦行陣 久廢眠食 父茲多闕 子孝希成 乃自往迎慰勞 新羅聞明王親來 悉發國中兵 斷道擊破…餘昌遂見圍繞 欲出不得 士卒惶駭 不知所圖 有能射人 筑紫國造 進而彎弓 占擬射落 新羅騎卒最勇壯者.”(『日本書紀』 欽明天皇 15년 12월조)

64) “此不言簡不肖以細之事 鄉畿內六鄉也 …… 庠則鄉之學也 耆老鄉中致任之卿大夫也云云”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鄉은 畿內六鄉을 의미하므로 鄉中의 致任한 卿大夫인 耆老是 畿內(鄉中)의 유력자로서 ‘老而賢者’를 의미한다.

65) 일부에서는 대성팔족을 대변하는 존재를 뜻한다는 견해(盧重國, 앞의 책, 1988, 180~181쪽)와 기로를 대성팔족 등 귀족세력으로 보는 일반적인 견해(金周成, 앞의 논문, 1990, 119쪽)도 있지만 필자는 기로를 대성팔족이 위덕왕 초기에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귀족세력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보고자 한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로들의 견제도 지속되었을 것이다. 위덕왕은 위축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하였고, 그중 하나가 대외 관계를 통한 문제해결 시도이다.

대외적으로 대외관계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한 위덕왕은 대내적으로 왕권을 견제하던 세력을 통제할 필요가 생겼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제에서는 사비시기에 한성기와 웅진기보다 더 많은 성씨 집단이 기록으로 남겨졌다. 귀족세력이 다양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위덕왕 시기에는 다양화된 귀족세력을 통제하기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귀족권을 인정해 주면서 왕권을 강화할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결과 북위에서 귀족들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성씨로 통제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여겨진다. 당나라에서는 당 황실의 성씨인 이(李)가 제1성씨로, 외척을 제2성씨로 삼는다는 것을 보면 황실이 제1성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의 8색성도 비슷한 모습이다. 그러나 북위에서는 황실의 성씨인 원(元)씨가 8성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백제의 대성팔족에 부여씨가 포함되지 않는 것과 같다. 즉 백제는 북위의 8성을 통해 백제의 대성팔족을 완성시켰던 것이다.

백제 사회에서 대성팔족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한 명확한 사료는 없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상황으로 미루어보면 대성팔족이 된다는 것은 여러 성씨 중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성씨가 된다는 것이고, 이는 다른 성씨에 비해 대성팔족이 우위에 있음을 보장받는 것이다. 따라서 백제의 대성팔족 역시 백제의 중앙으로부터 인정받은 성씨 집단이 되어 왕실과 자연스럽게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였을 것이다. 백제 왕실도 강력한 8개의 성씨 집단을 대성팔족에 포함시킴으로써 다양한 성씨 집단에서의 우위를 인정해 주고, 그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모색했을 것이다. 이는 중국과 일본에서 행한 일련의 사건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즉 백제에서 대성팔족을 제정한 것은 다양한 성

씨 집단의 통제와 왕권 강화의 측면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V. 맺음말

백제에는 대성팔족이 존재했다. 그리고 이 대성팔족은 존재가 처음으로 기록된 『수서』에 의하면 위덕왕~무왕 시기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위덕왕~무왕 초기는 관산성 전투 이후 약화되어 있었다. 왕실에서는 왕권 강화를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그 결과 위덕왕과 무왕은 대외 관계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위덕왕은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외교관계 및 불사창건을 하였다. 그와 동시에 일부 세력을 우호 세력으로 끌어들이고자 대성팔족을 형성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시기에 대성팔족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전히 왕실에 남겨진 과제가 많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위덕왕 다음으로 왕위에 오른 법왕과 혜왕이 일찍 죽었다는 점에서 왕실에 남겨진 과제는 그대로였을 것이다. 이를 타개한 것이 무왕으로 보인다.

무왕도 즉위 후 중국과의 교역을 꾸준히 지속하였다. 그리고 불안정한 출자로 인해 왕권 강화를 위해 귀족들을 통제할 필요가 생겼다. 그 과정에서 대성팔족을 완성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백제의 상황은 사신들에 의해 중국에 전해졌을 것이다.

사비시기는 다양한 성씨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중앙으로 진출한 세력이 많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백제 왕실은 북위의 8성 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북위에서는 호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효문제 시기 한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때 8성이 제정되

는데, 이는 대문벌 4성의 권한을 8성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의 권한을 보호해주었다. 백제는 북위의 8성 제정을 모델로 삼고 대성팔족을 형성시킨 것으로 보인다.

대성팔족은 다양한 성씨 집단 속에서 8개의 대성을 인정해줌으로써 귀족들의 지위를 인정해준 것이다. 대성팔족으로 인정받은 대성은 백제 왕실과 결탁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를 통해 무왕은 자신의 정책을 수행할 수 있던 것이다. 무왕시기에 완성된 대성팔족은 왕실과 대성으로 지정된 8개의 성씨 집단 각각에게 이익이었던 정책이었던 것이다.

(2022.06.27. 투고 / 2022.07.28. 심사완료 / 2022.08.11. 게재확정)

[Abstract]

**The Great Eight Families(大姓八族) of Baekje(百濟)
and Eight Families(8姓) of East Asian**

Oh, Taek-hyun

The great eight families(大姓八族), which existed in Baekje, was first recorded in the 『Suishu(隋書)』. It seems that the great eight families(大姓八族) was established in the process of seeking a new way to strengthen the royal power in the royal family. There were many tasks left to the royal family during the reign of King Uideok(威德王), King Beop(法王), and King Hye(惠王), so it seems that the great eight families(大姓八族) was completed during the reign of King Mu(武王). And this pattern of change in Baekje was passed down to China by envoys.

Then, why was it formed into the great eight families(大姓八族)? During the Sabi Period, there were various family names. The Baekje royal family tried to control various family names by enacting up to eight castles. To this end, the Baekje royal family seems to have referred to the enactment of eight stars in the north. In the north latitude, Hanwha policy was actively implemented during the period of filial piety in order to maintain the system. Baekje was model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eight provinces in the north and formed the great eight families(大姓八族).

In the end, the great eight families(大姓八族) recognized the status of the nobles by recognizing eight great personalities in various family

names groups. the great families, who was recognized as a great eight families(大姓八族), would have been in collusion with the Baekje royal family, and through this, King Mu(武王) was able to implement his policies. The great eight families(大姓八族), completed during the reign of King Mu(武王), was a policy that benefited each of the eight family names designated as royal family and the great families.

□ Keyword

The Great Eight Families, King Uideok, King Mu, eight surname of Beiwei, eight surname of Japan

[참고문헌]

1. 1차 자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日本書紀』

『魏書』 『隋書』 『北史』 『括地志』 『新唐書』 『通典』 『通志』 『資治通鑑』 『禮記』

2. 국내 저서 및 논문

강종원, 『4세기 백제사 연구』, 서경문화사, 2002.

강종원, 「百濟 熊津遷都와 貴族勢力의 動向」, 『한국고대사연구』 52, 한국고대사학회, 2008.

金秉南, 「백제 웅진시대의 남방 재진출과 영역화 과정」, 『軍史』 제61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金榮官, 「百濟의 熊津遷都 背景과 漢城經營」, 『忠北史學』 11·12合輯, 충북대학교 사학회, 2000.

김주성, 『백제 사비시대 정치사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김주성, 「백제 武王의 정국운영」, 『대발견 사리장엄! 미륵사의 재조명』, 2009.

盧重國, 「解氏와 扶餘氏의 王室交替와 初期百濟의 成長」, 『金哲俊博士 華甲紀念 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3.

노중국, 『百濟政治史研究』, 일조각, 1988.

노중국, 「4~5世紀 百濟의 政治運營」, 『韓國古代史論叢』 6, 한국고대사학회, 1994.

노중국, 『백제사회사상사』, 지식산업사, 2010.

노중국, 「백제의 대외 교섭과 교류」, 지식산업사, 2012.

노중국, 「백제 무왕의 出系와 천하관」, 『百濟學報』 제25호, 백제학회, 2018.

- 노중국, 『백제 정치사』, 일조각, 2018.
- 문동석, 『백제 지배세력 연구』, 혜안, 2007.
- 박순발, 「사비도성의 구조에 대하여」, 『백제연구』 제31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0.
- 박윤우, 「백제 사씨(沙氏) 세력의 부상과 세력 기반」, 『百濟學報』 제35호, 백제학회, 2021.
- 朴賢淑, 「熊津 遷都와 熊津城」, 『百濟文化』 제30집,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1.
- 안광호, 「韓國 本貫制度의 起源과 ‘土姓 分定’ 說에 관한 검토」, 『전북사학』 제45호, 전북사학회, 2014.
- 安芮璿, 「《新唐書》와 《舊唐書》의 서사비교」, 『中國語文論叢』 제90호, 2018.
- 梁起錫, 「熊津時代의 百濟支配層研究-王權強化政策과 關聯하여-」, 『史學志』 14권, 단국사학회, 1980.
- 양기석, 「백제 위덕왕대 왕권의 존재형태와 성격」, 『百濟研究』 제21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90.
- 양기석, 『百濟專制王權成立過程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양기석, 「威德王대의 대외관계」, 『선사와 고대』 제19호, 한국고대학회, 2003.
- 양기석, 『백제의 국제관계』, 서경문화사, 2013.
- 연민수·김은숙·이근후·정효운·나행주·서보경·박재용, 『역주 일본서기』 3, 동북아역사재단, 2013.
- 오택현, 「백제 복성(複姓)의 출현과 그 정치적 배경」, 『역사와 현실』 제88호, 한국역사연구회, 2013.
- 오택현, 「百濟 王姓 扶餘씨의 성립과 複姓의 수용」, 『木簡과 文字』 제23호, 한국목간학회, 2019.
- 오택현, 『百濟 姓氏의 歷史的 展開와 大姓八族』,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20a.

- 오택현, 「百濟 沙氏의 정치적 位相」, 『新羅文化』 제57집, 동국대학교 신라 문화연구소, 2020b.
- 오택현, 「百濟 威德王의 왕권 강화와 益山」, 『中央史論』 제52집,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20c.
- 오택현, 「백제(百濟) 대성팔족(大姓八族)과 예(禰)씨」 『동아시아문화연구』 제84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21.
- 이경복, 「백제 응진도읍기 공주 수촌리 재지세력 동향」, 『白山學報』 제114호, 白山學會, 2019.
- 이기백, 「熊津時代 百濟의 貴族勢力」, 『백제연구』 제9집, 충남대학교 백제 연구소, 1979.
- 이공범, 『위진남북조사』, 지식산업사, 2003.
- 李弘植, 「百濟人名考」, 『(서울大學校)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1輯, 서울 대학교, 1954.
- 장미애, 『백제 후기 정치 세력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鄭載潤, 「熊津 泗泚時代 百濟의 地方統治體制」, 『韓國上古史學報』 제10호, 韓國上古史學會, 1992.
- 정재윤, 「初期 百濟의 成長과 眞氏 勢力의 動向」, 『歷史學研究』 제29집, 湖南史學會, 2007.

3. 국외 저서 및 논문

- 今西龍, 「百濟五方五部考」, 『百濟史研究』, 東京, 近澤書店, 1934.
- 村山正雄, 「百濟の大姓八族について」, 『山本博士還曆記念東洋史論叢』, 東京, 山川出版社, 1972.